

분노하는 아동의 상담사례연구

김태선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A Case Study on Child-Centered Play Therapy for Young Child's Anger

Tae-Sun Kim

Visiting Professor,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요약 본 연구는 분노감정이 주된 정서조절 이슈의 5세 여아에 대한 아동중심놀이치료 이론을 근거로 한 아동상담 사례이다. 아동 분노의 빈도 및 강도로 인하여 유치원 적응 및 어머니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동상담은 Full Battery 심리검사 실시 후, 2021년 3월 29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14개월 동안 주 1회씩 아동상담 40분 부모상담 10분의 총 47사례회가 진행되었다. 아동은 주도적인 놀이를 통해 상담사례회기 동안 공격성, 통제성, 애정 및 힘의 욕구를 나타냈으며, 상담실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정서조절능력의 향상이 관찰되었다. 아동은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과 요구에 대한 언어와 행동적 표현능력의 향상을 나타내었고, 초등학교 입학 후 원만한 학교적응 양상을 보였다. 어머니는 아동양육이 전보다 편안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한해 전 14개월 동안 정서조절에 대하여 개입 한 상담사례연구의 결과로, 1학년 학기초 동안 적응적 학교생활양식을 확인한 연구로서도 의의가 있다.

주제어 아동중심놀이치료, 아동상담, 분노, 정서조절, 유아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ild counselling process of a 5-year old girl with anger problem. Her mother had difficult on caring a child. The researcher conducted 47 session of child counseling through child-centered play therapy once per week during 14months for 40 minutes. Parent consultation session followed for 10 minutes. The child expressed her aggression, control, desire of affection and power during the sessions. As a result, the child's anger decreased, and child-mother relationship improved. Finally, the child successfully adapted new school life. The mother reported that raising children was much easier than b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it is a case study of a child's intervention in counseling prior to her entering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showed her adaptive school lifestyle during the beginning of the first year.

Key Words child-centered play therapy, child counseling, anger, emotional regulation, young child

Received 06 Jul 2022, Revised 11 Jul 2022

Accepted 20 Jul 2022

Corresponding Author: Tae-Sun Kim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Email: silenight@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정서는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의 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변인이다. 아동의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는 아동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3],[9],[17],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인 정서 조절의 미숙함이 아동의 우울, 공격성 등의 부정적 감정의 빈도 및 강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1],[8].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중요성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기초로 아동의 정서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고 연구되었다[4],[6]. 그렇지만 아동의 정서조절함양을 위한 개인치료적·상담적 방법에 대한 연구는 그에 비해 드문 편이며, 경험적 방법으로서 개별 아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서조절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 다양한 신체·정서·인지의 발달을 이루어 나간다[9]. 놀이는 아동의 상징적 언어이며, 즐거우며 본능적 동기를 유발한다[10],[12].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미숙한 전조작기와 구체적조작기의 아동에게 놀잇감은 아동의 언어로써 상담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2],[14]. 인간중심상담기법이 근간을 이루는 아동중심놀이치료는 아동을 존중하며 가치롭게 여기고, 아동의 주도성을 인정하여 상담자의 전적인 수용과 반응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놀잇감을 매개로 한 아동상담 접근법이다[13].

아동중심놀이치료이론에 따르면 상담자의 완전한 수용과 안전한 환경제공 하에 아동은 아동자신의 주도로 놀이를 택하고 진행하며, 그를 통해 책임감, 자기통제능력 및 정서조절능력 등을 형성할 수 있다[10],[16]. 정서조절능력이 취약한 아동에게 놀이를 매체로 한 아동상담 특별히, 아동중심놀이치료 이론을 통한 상담이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5],[7],[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중심놀이치료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놀이를 매체로 한 아동상담을 수행하였다.

또한 아동은 사례회기 시작 전 임상심리사의 심리검사에서 ‘누적된 좌절감이 내적분노를 형성하는 양상’이란 진단을 받았다. 아동중심놀이치료 이론을 근간으로 한 아동상담에서 아동은 놀이를 주도하며 자신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 아동은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상담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경험으

로 인해 자존감과 성취감 향상을 이룬다. 따라서 연구대상아동의 누적된 좌절감을 해소하고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아동중심놀이치료이론이 적합하다.

본 연구 대상의 아동은 정서조절능력이 부족하여 다양한 생활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별히, 아동은 작은 일에도 감정이 폭발하며(예: “엄마를 죽여버릴거야” 하며 울음), 분노하는 경향이 있다. 분노는 개인 자신이 정한 권리나 경계를 침해당할 경우, 욕구나 소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가 좌절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이고 의사소통의 역할을 한다. 아동에게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동생활 전반의 적응적 삶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5]. 분노의 빈도, 강도 및 지속 정도가 지나치게 되어 공격적 언어 및 행동이 극단적으로 표현되면 이는 타인과의 관계 및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12].

본 연구는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있어 특히, 분노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므로 언어 및 행동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5세 아동에게 아동중심놀이치료이론을 적용한 상담사례이다. 다수의 부모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시기가 다가오면, 첫 공교육 기관인 초등학교 입학 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우려한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입학시기에 맞추어 연차를 내는 경우도 흔하게 관찰할 수 있다. 본 사례연구의 어머니도 그러한 경우이다. 이러한 최근의 현상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입학 한해 전 유아기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효과적이며 개별적인 조기개입방법을 경험적으로 모색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인 아동은 2살 많은 언니가 존재하는 만 5세 여아로서 유치원에 다닌다. 서울에 거주하며, 맞벌이 가정 환경인 회사원 아버지(44세), 어머니(42세)(접수면접당시 연령)와 함께 살고 있다. 부모 모두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다.

아동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어요.” 라고 호소하였으며, 주양육자인 어머니는 “아이가 화가 많고 소리를 지르는데, 소통이 안되고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부모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이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2.2 심리검사 요약

아동의 전체지능은 113로 ‘평균 상’ 수준이다. 아동은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다. 아동의 이면에는 상당수준의 무력감 등 부정적 정서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외양 행동에 대해서만 개입이 이루어진 상태로 누적된 좌절감이 내적분노(inner anger)를 형성하는 양상이다. 아동은 추후 반항성 행동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ODD]) 등 다른 장애로의 이환이 우려된다.

2.3 사례개념화

아동은 기질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동이며, 불안도가 높은 기질적 취약성이 있다. 아동은 인지적 수준이 높아 다양한 현상에 대한 내적욕구 및 애정에 대한 욕구도 많으나 부모가 이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취업모로서 어린시절부터 아동과 충분한 양적인 시간을 보내지 못하였고, 주양육자는 외할머니였다. 부모 모두 정서지지, 수용 및 공감적 양육행동이 부족하였다.

어머니는 불안도가 높고 아동의 행동을 권위주의적 즉, 지시·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좌절시켰다. 부모 모두 아동의 정서를 담아내고(containing) 반영하는(mirroring) 측면 즉, 아동의 미숙함을 이해하며 수용하는 부분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아동의 기질적 취약성과 부모의 긍정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으로 아동은 자기감정을 원활히 표현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공격적 언어 및 행동을 하는 아동으로 발달하였다. 아동이 화를 자주 내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또한 아동의 욕구가 지연되거나 충족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예민하고 불만족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아동중심놀이치료를 아동상담의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의 정서와 행동을 일관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로 반영하였다. 연구자와 아동 간 따뜻하고 일관적인 상담적 동맹관계를 기초함으로써 아동의 놀이의 주도성을 인정하였고, 아동이 긍정적·부정적 감정표현을 발산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정서에 대한 전적인 공감과 아동행동의 일관적인 제한 및 대안행동을 제시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연구자는 아동이 안정적 치료관계에서 자아상을 회복하고, 대처방략을 습득하는 한편, 정서를 분화된 방식으로 인식하도록 도와 정서조절능력을 함양하도록 상담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2.4 연구절차

아동상담의 회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임상심리전문가에게 아동의 종합심리검사인 Full battery 심리검사를 의뢰하였다. 임상심리전문가는 심리평가 해석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에 연구자와 아동의 개별 아동상담회기가 수행되었다. 아동상담 연구기간은 2021년 3월 29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14개월여 기간 동안 총 47사례회기이며, 서울시 소재의 상담심리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아동상담 40분 부모상담 10분으로 진행되었다. 부모상담은 10분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아동 어머니의 육아 휴직 및 복직의 전환기인 1개월 반 정도 기간동안 상담사례가 정지되기도 하였다.

3. 사례회기 진행과정

3.1 상담초기(1회기-10회기)

상담초기에 상담자인 연구자는 아동과 신뢰롭고 따뜻한 치료적 동맹관계를 맺으며 라포형성에 힘썼고, 아동에게 안정적인 상담환경을 제공하였다. 아동에게 유치원생활에 대하여 물으니 재밌기도 속상하기도 하다고 대답한다. 아동은 미숙한 감정과 행동적 대처로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혼자 놀 때도 많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아동의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 주자, 아동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힘들때도 있어요”라고 속마음을 이야기 한다.

인지수준이 높고, 호기심이 많은 아동은 질문이 많다. “이건 뭐예요?” 아동은 다트를 던지며 때론 연구자의 눈치를 살피고, 놀잇감을 떨어뜨리고 나서는 굉장히 미안해하며 “미안해요”라고 말한다.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정리정돈시키는 훈육이 너무 강압적이진 않은지 유추해 본다. 아동은 모래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잘 안된다고 짜증을 낸다. 연구자가 성을 세우고 싶지만 잘안되어 속상한 아동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대안으로 옥토벳(모래보다 끈끈한 성분이 있어 아동이 모양만들기가 수월함)을 소개해 주었다. 아동은 성을 크게 만들고 성취감과 충족감을 드러낸다. “완성” 아동은 기쁜 목소리로 연구자에게 함께 놀자고 놀이에 초대한다.

아동은 놀이도중 연구자가 아동을 제지할 시간도 없이 뛰어나가 다른 비어있는 상담실로 가는 충동성을 보이기도 한다. 연구자는 아동이 원하는 놀잇감을 1개 선택하여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을 공감 후

상담시간동안 머물러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아동이 6회기에 상담시간에 매우 늦었는데, 엄마와 택시를 타고 오다가 잠에 깨어서 화가나고 짜증이 난 상태로 상담실에 온 것이었다. 비가 오기도 하고, 오기에 힘든 날이었는데, 잠까지 깨버린 일로 아동은 택시안에서 “엄마를 죽여버릴거야.”라며 분노의 감정을 일으켰다. 어머니는 부모상담시간에 양육이 힘들음을 이야기하며 운다.

상담 9회기에 아동은 오는 도중 바지에 오줌을 지렸는데, 새로운 바지를 가지고 오면 나가겠다며 도착하자마자 상담센터 화장실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연구자는 아동의 힘든 마음을 수용해주며 아동을 달래보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아동과 연구자 간 대화 끝에 아동은 어머니만 들어오게 하고 어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온다. 아동은 진정된 후 상담실 문을 열어 연구자에게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웃으며 떠난다. 아동은 다리를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상담이 진행된 날이었다.

3.2 상담중기(11회기-37회기)

상담중기는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 후 4월 중순경까지 진행되었다. 상담의 중기단계는 아동의 분노조절 상담목표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들이 시작된다. 연구자는 공감 및 일관적 제한과 온전한 수용 등을 통해 아동이 힘의 욕구,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를 발산하게 하고, 불안감 감소 및 정서의 분화를 도왔다.

아동은 상담실에 오자마자 “유치원, 태권도, 상담학교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라며 방식을 가지고 와 그 위에 눕는다. 아동이 상담실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느끼는 것이 전달되었다. 연구자가 피곤함을 공감해주자 아동은 잠이 오지는 않는다며 일어나서 모래놀이를 한다. “내가 힘이 세다.” 아동은 공을 치며 힘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고, 연구자에게 “말하지 마세요.”라며 통제욕구를 드러내기도 한다. 모상담 시간 동안 어머니는 아동이 원하는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떼를 쓰고 드러누워버리는 행동의 빈도가 줄었다고 보고한다. 아동이 연구자를 놀이에 초대하여 상호작용하는 놀이가 늘었다. 아동은 마트놀이, 병원치과 놀이를 하며 자신이 계산원, 의사가 되기도 하며 음식가격을 이야기하고, 연구자에게 아픈곳을 말하라고도 한다. 연구자는 역할연기 중 감정표현 및 공감을 하며 감정표현과 공감의 모델링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아동은 갑자기 상담실 밖에 있는 색연필을 가져오겠다

고 한다. 연구자는 아동은 상담도중에는 나갈 수 없으며, 연구자가 가져올 수 있거나 여기있는 것들 중 쓸 수 있다고 말해주었는데, 아동은 모래를 뿌리며 화난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연구자가 그 감정을 공감해주자 이내 마음이 풀려 “선생님이 가져와 주세요.” 라고 한다. 아동은 색칠을 하며 자신이 색칠할 동안 연구자에게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통제욕구와 연구자의 제한이 서운했음을 표현한다. 연구자가 계속하여 화났던 감정과 서운함을 수용해주고 아동의 행동을 반영해주자 기분이 좋아져서 상담실을 나갔다.

3.3 상담후기(38회기-47회기)

아동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고 온 어머니는 담임선생님 말씀이 아동이 눈에 띄는 문제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동은 친한 친구도 생겼고, 학교 수업시간이 힘들다고 연구자에게 말하긴 하지만, 어머니 보고에 의하면 아동은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화를 내며 드러내는 행동을 했던 작년과 달리 학교가기 싫다고 화를 낸 적이 없다. 어머니 보고에 따르면 아동은 전보다 화를 덜 내고,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려고 시도한다.

아동은 모래놀이를 매체로 양육놀이를 하며 음식을 만들어 연구자에게 먹여준다. 갑자기 “여기가 저만을 위한 곳이에요?” 라고 연구자에게 물어 연구자가 그렇다고 따뜻한 미소로 답해주자 “믿기지 않아요.”라고 말한다. 연구자가 믿기지 않을 만큼 기분이 좋음을 공감해 주자, 웃으며 “네! 처음 왔었을 때는 떨리고 불안했어요.”라며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아동은 때론 여전히 놀이에서 공격성과 힘에 대한 욕구를 드러낸다. 병원놀이에서 연구자를 주사기로 찌르려 해, 제한을 하고 다른 체온계 놀잇감으로 주의를 전환시켰다. 상담실에서 아동의 정서조절과 행동조절능력이 관찰된다. 상담실 밖에서 소리가 들리자 아동이 나가고 싶어 해, 그 마음을 공감 후 제한하자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수긍한다. “밖에 아이들 중 누가 이겼는지 궁금했어요.” (대기실에서 상담대기하는 아동들은 때로 서로 놀이를 한다.) 자신의 감정을 말로 연구자에게 표현한다. 아동의 궁금한 마음과 밖의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을 공감해 주었다. 아동이 상담실을 나가자마자 대기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누가 이겼어요?”.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욕구를 만족 지연시키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분노감의 정서조절문제를 지닌 초등학교 입학 전 6세 여자 아동에게 1년 2개월 동안 총 47회의 아동중심놀이치료이론을 기초로 아동상담을 진행하고 아동상담의 단계별 상담회기과정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행동적 변화를 연구한 단일사례연구이다. 본 사례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분노하는 강도 및 빈도가 모의 가정생활에서의 보고와 상담실에서의 연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현저히 줄었다. 놀이감을 매체로 한 아동중심상담이 수행되면서, 아동은 통제욕구, 힘에 대한 욕구, 스트레스 등을 발산하며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한 결과이다. 내적분노감의 원인이었던 욕구가 좌절되었던 경험이 연구자의 반영적, 공감적 반응을 통해 상담실에서 충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아동 자신의 까다롭고 예민한 기질을 스스로 조절하는 행동을 보였다.

둘째,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상담실과 모의 보고에 따른 집에서 관찰되었다. 분노의 빈도, 강도 및 지속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일상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할 정도로 공격적 언어 및 행동이 극단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13], 아동은 구체적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모습으로 전과같이 화를 내며 공격적 행동을 하는 모습이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안전하고 일관적인 상담실 환경에서 아동 자신이 주도하는 놀이과정을 통해 자존감 및 유능감이 향상되었고,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화법과 감정표현을 모델링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연구자에 의해 충분히 감정이 반영되는 경험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켰고, 분노의 부정적 감정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아동으로 발달하게 하였다.

셋째, 모의 보고에 따르면 어머니는 아동의 기질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아동이 감정을 표현하며 스스로 행동조절을 하는 모습을 나타냄에 따라 어머니가 당황하여 아동을 혼내는 모습이 줄었다고 한다. 아동의 변화는 어머니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아동과 어머니의 변화의 상호작용으로 어머니의 아동양육이 수월해졌다.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 및 행동 등은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들[11],[1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1학년 학기 초 학교 부모상담시간에 참여한 어

머니의 보고에 따르면, 특별한 아동의 문제행동은 담임선생님에 의해 관찰되고 있지 않으며, 담임선생님이 아동은 친한 친구들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학교적응을 잘해나가고 있는 아동이라 묘사한다고 한다. 이는 아동중심놀이치료를 통해 아동의 사회성 향상이 이루어진 연구들[3], [10]과 맥을 함께 하는 결과이다. 위의 결과들은 아동에게 아동중심놀이치료이론을 적용하여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논의한 연구들[3],[5],[10]과 일치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진입기 전 놀이를 매체로 아동상담하여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하고, 초등 1학년 초기 동안 적응적인 학교생활양식의 결과가 나타난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취학전 아동의 정서조절을 위한 경험적 기초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변화와 함께 부모상담을 통한 부모의 아동의 기질에 대한 이해도, 양육행동 등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1] 박성연, 강지훈 (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2] 박성연 (2006). 아동발달. 서울: 교문사.
- [3] 박연주 (2008). 충동성과 공격성으로 인해 또래관계가 어려움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상담학연구, 9(3), 1245-1266.
- [4] 박윤아, 박지연 (2008). 분노조절프로그램이 정서 및 행동장애 위험 아동의 공격성 및 정서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24(1), 23-42.
- [5] 윤진영 (2018). 분노조절 문제를 동반한 ADHD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발달지원연구, 7(2), 39-56.
- [6] 이아영, 김유미 (2015).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아동의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14(4), 519-536.
- [7] 이정숙, 이유경, 문보경 (2006). 아동의 문제유형과 놀이치료 시기에 따른 놀이특성 변화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1), 77-104.
- [8] 한유진 (2005).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 및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6(4), 85-100.
- [9] 조은정, 이기학(2004).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3), 583-595.
- [10] 최윤정, 김지신 (2020). 정서조절이 미숙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의 놀이치료와 감정코칭을 활용한 부모상담 사례연구. 발달지원연구, 9(2), 25-48.
- [11] 허미혜, 이정자(2010). 부모-자녀 상호작용증진 프로그램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및 모-자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까다로운 기질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치료연구, 14(2), 61-77.
- [12] Ginott, H. (1994). Group psychotherapy with children: The theory and practice of play therapy. Northvale, NJ: Jason Aronson
- [13] Greenberg, L., S. (2001). Emotional-focused therap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14] Landreth, G. L. (2012). Play therapy: The art of relationship(3rd ed). New York: Routledge.
- [15] Lieberman, A. F., Ippen, C. G., & Van Horn, P. (2006). Child-parent psychotherapy: 6-month follow-up of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5(8), 913-918.
- [16] Schaefer, C. (Ed.).(1993). The therapeutic power of play. Northvale, NJ: Jason Aronson.
- [17] Wood, J. (2006). Effect of anxiety reduction on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soci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2(2), 345-349.

김 태 선 (Kim, Tae-Sun)



- 202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 박사
- 2022년 3월 ~ 현재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객원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상담, 부모교육, 애착, 인간발달, 심리치료
- E-Mail : silenight@hanmail.net